

2024-04-01 (2024-14호)

04월 01일 로이터 뉴스레터

▶ 달러/원 주간 전망

• 차별화된 美 경제와 강달러... 배당 역송금 영향권

서울, 4월1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지난 주 연고점을 새로 쓴 달러/원 환율은 차별화된 미국 경제에 기반한 달러 강세 확산 정도에 주목하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단기 고점을 높이려는 시도에 나설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330-1,360원이다.

미국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우려가 더 확산되지는 않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주목하는 핵심 물가지표인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지난 2월 전월비 0.3% 올라 시장 예상과 부합한 한편 지난 1월(+0.5%)보다 둔화됐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작년 하반기 보였던 물가 흐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연준 금리 인하 전망에 기대 주요국들이 일제히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을 저울질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차별성을 띄는 미국 경제 어건이 달러에 힘을 실어주면서 지난 주 원화 가치는 달러 대비 5개월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번 주중에 발표될 미국 제조업과 서비스업지표를 비롯해 주 후반에 나올 미국 고용지표 결과 따라 강달러에 대한 시장 재평가가 이뤄질 테고, 이 과정에서 원화는 글로벌 달러에 연동된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로이터 사전 조사에서는 3월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가 2월 27만5천명보다 줄어든 20만명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3월 유로존 물가지표 결과가 유로 방향과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고, 이에 달러가 함께 반응할 여지는 열려둬야할 듯하다.

원화가 달러와 밀접한 흐름을 보이지만 위안과의 연동성 역시 여전히 높다.

31일에 발표된 중국 3월 공식 제조업 PMI지표는 50.8로 1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 정부의 경기 둔화 완화와 위안을 비롯한 시장 안정 의지가 불안한 시장심리를 달래는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할 듯하다.

주중 나오는 중국 차이신 제조업 및 서비스업 지표 결과를 포함해 중국인민은행의 달러/위안 고시 환율 수준에 대해 시장은 관심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글로벌 외환시장의 변동성 촉매 역할을 하는 엔 움직임에 대한 관심도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원화 자체적인 재료로는 3월 수출과 무역수지 잠정치와 주 후반에 나올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꼽힌다.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도체 주식을 매집한 데 따른 후속 움직임을 당분간 살펴야 할 듯하다.

아울러 주 후반부터 외인 배당 관련 수급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로이터 추산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와 메리츠금융지주가 배당을 지급하고 이에 따른 외인 배당 몫은 2,500억원 상당이다.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주간 세계 5대 이슈

◎ 1분기와 다른 2분기의 시작

2분기의 시작은 1분기와 다를 것이다. 1월에 시장은 올해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를 거의 여섯 차례, 총 150bp 가까이로 반영했다. 그러나 지금 시장의 예상은 단 세 차례다.

연착륙에 대한 확신은 주식, 금, 암호화폐를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등 '모든 것의 랠리'를 촉발시켰다.

한편 달러화는 거의 모든 주요 통화에 대해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 인도 등 중앙은행들이 자국 통화를 강화하기 위해 개입하거나 개입을 고려하고 있다.

글로벌 금리 사이클의 변화로 저수익 자산은 사라지고 수익률이 조금이라도 있는 자산은 각광을 받고 있다. 2분기는 이러한 전망이 옳은지 여부를 가늠하는 궁극적인 리트머스가 될 것이다.

◎ 미국 월간 고용지표

오는 5일 나올 미국 고용지표는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더라도 경제가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한 투자자의 자신감을 시험할 것이다.

로이터 사전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3월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가 20만명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2월 27만5000명보다 낮은 수치다.

연준이 지난 3월 회의에서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 전망을 뒷받침하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미국 경제의 '연착륙'에 대한 희망이 커지는 듯 보였다.

그러나 올해 초 소비자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경기 과열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 개입 경계감

일본과 중국의 통화 당국은 달러 강세로 인해 자국 통화가 수개월 동안 방어해 온 수준을 넘어 약세를 보임에 따라 높은 경계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

달러/엔이 152엔을 향해 상승하고, 달러/위안은 7.2위안을 넘어선 가운데, 일본과 중국 당국자들은 자국 통화의 추가 절하를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당국자들의 구두 경고가, 중국에서는 국영 은행들의 달러 매도 개입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아시아의 두 주요 통화가 얼마나 많이 하락했는지를 고려할 때, 중국이 엔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위안 약세에 더 관대해졌을 수 있다는 생각도 점점 커지고 있다.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고, 두 나라 모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지수다.

⊙ 유로존 인플레이션

시장은 유럽중앙은행(ECB)이 6월에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후 예상만큼 정책을 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구심이 있다.

따라서 금리 전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오는 3일 발표될 유로존 3월 인플레이션 지표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지난주 나온 스페인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해 로이터 전망치와 일치했지만, 2월의 2.8%보다 상승률이 높아졌다.

ECB가 여름 금리 인하를 단행하려면 인플레이션이 더 하락해야 하므로 다음 세 차례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시장과 ECB에게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금리 인하 베팅은 더 밀려날 수 있다.

⊙ 中 경제 주목

투자자들은 4월1일 나올 중국 차이신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주시하고 있다.

로이터 사전 조사에서는 51.0으로 소폭의 확장세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됐다. 2월에는 50.9였다.

중국 1~2월 산업이익 호조가 어느 정도 안도감을 주긴 했지만, 부동산 위기와 다양한 중국 현지 요인들로 인해 외국인들은 여전히 선뜻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해외 기업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베이징에서 미국 재계 지도자들을 만났지만,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여전히 중국이 무언가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다. 중국은 추가적인 통화 및 재정 부양책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는 주식과 위안에 타격을 주고 있다.

▶ 美주식시장/주간전망

• 연준 금리 인하 시기와 실적 주목

뉴욕, 4월1일 (로이터) -

올해 주식이 순조로운 출발을 보인 가운데, 투자자들은 연방준비제도가 6월까지 금리 인하를 단행할지 여부를 주시하고 기업 실적도 주목하면서 2분기 증시 전망을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S&P500지수는 10% 이상 상승하며 1분기를 마감했는데, 이는 2019년 1분기의 근 13.1% 상승 이후 1분기 최대 상승폭이다. 반도체 제조업체인 엔비디아와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플랫폼 등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이 분기 상승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지난 6주 동안 에너지와 산업재 등 경기에 민감한 업종도 상승세를 보였다.

이 같은 랠리가 6월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연준에 달려 있다. 1월 초 시장은 올해 6~7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상했지만, 미국 경제의 회복 조짐으로 소위 연착륙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높아지면서 현재는 3차례의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네드데이비스리서치의 수석 글로벌 매크로 전략가인 조 칼리쉬는 "시장과 연준이 마침내 기대치를 일치시키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모든 경제 보고서들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더 많은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면 변동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CME 페드워치 톨에 따르면 시장은 연준이 오는 6월 정책회의에서 금리를 25bp 인하할 가능성을 61%로 보고 있다.

하버캐피탈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제이슨 알론조는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투자자들이 더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찾으면서 최근 경기 순환 업종과 소형주로 확대된 시장 랠리가 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형주로 구성된 러셀2000.RUT 지수는 1분기에 4.8% 상승했고, S&P500 산업업종 지수는 11% 가까이 상승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로는 ISM 제조업 지표, ISM 서비스업 지표, 비농업부문 고용 보고서 등이 있다.

CFRA리서치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샘 스토크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가까워지면서 시장 랠리가 둔화되기 시작하더라도 투자자들은 놀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989년 이후 S&P500지수는 한 사이클의 마지막 금리 인상과 첫 금리 인하 사이에 평균 15.5% 상승했지만, 첫 금리 인하 이후 6개월 동안은 평균 5.4% 상승에 그쳤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루스트어드바이저리서비스의 공동 최고투자책임자인 키스 레르너는 1분기의 강력한 모멘텀은 역사적으로 다음 분기로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

그는 "지속적인 랠리의 가장 큰 위험은 연준이 연말까지 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일 것이며, 이는 위험 자산의 극적인 가격 재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존헨콕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의 공동 수석 투자 전략가인 에밀리 롤랜드는 시장 둔화 가능성은 기업 실적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LSEG I/B/E/S에 따르면 2023년 마지막 분기 S&P500 이익 증가율은 10.1%로, 예상치인 4.7%의 두 배가 넘었다.

애널리스트들은 1분기에는 5.1%의 이익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기업들은 4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을 발표하기 시작한다.

존헨콕의 롤랜드는 "기업 이익이 계속해서 상승 서프라이즈를 보인다면 연준은 올해 3차례의 금리 인하를 정당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겠지만 인플레이션이 둔화된다면 이러한 경기 재가속화는 보다 지속 가능한 것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jiyoun.kim@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4월1일(월)

- ⊙ 산업통상자원부: 3월 수출입 지표
- ⊙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행장 간담회 (08:00)
- ⊙ 기획재정부: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 (11:00)
- ⊙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최근 글로벌 통화긴축기 중 미국 국채금리의 국내 파급영향 확대 배경 및 평가 (12:00)

4월2일(화)

- ⊙ 통계청: 2024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 (08: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물가관계 장관회의 (08:00)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 부문 간담회 (09:30)
- ⊙ 한국은행: 2024년 제5차(3.14일 개최, 비통방) 금통위 의사록 공개 (16: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AMCHAM(주한 美 상공회의소) 대표단 간담회 (16:45)

4월3일(수)

- ⊙ 한국은행: 2024년 3월말 외환보유액 (06: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 (10:00)
- ⊙ 기획재정부: 1차관 뉴욕멜론은행 면담 (11: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15:00)

4월4일(목)

- ⊙ 금융위원회: 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 개최 (09:00)
- ⊙ 한국은행: 2023년 자금순환(잠정) (12: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밸류업 프로그램 해외 투자자 간담회 (14: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대외경제자문회의 (16:00)

4월5일(금)

- ⊙ 한국은행: 2024년 2월 국제수지(잠정) (08:00)
- ⊙ 기획재정부: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 (10: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4월1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4월1-8일	08:50	일본	외환보유고	3월		1,281.5B
4월1-8일	23:00	미국	자동차판매	3월		3.130M
4월1일	08:50	일본	단칸 대형 제조업지수	1분기	10	12
4월1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제조업 PMI 확정치	3월		48.2
4월1일	10:45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3월	51.0	50.9
4월1일	22:45	미국	S&P글로벌 제조업 PMI 확정치	3월		52.5
4월1일	23:00	미국	ISM 제조업 PMI	3월	48.4	47.8
4월2일	17:00	유로존	HCOB 제조업 PMI 확정치	3월	45.7	45.7
4월2일	23:00	미국	내구재주문 수정치	2월		1.4%
4월2일	23:00	미국	JOLTS 구인건수	2월	8.790M	8.863M
4월3일	10:45	중국	차이신 서비스 PMI	3월		52.5
4월3일	18:00	유로존	조화소비자물가지수 잠정치 YY	3월	2.6%	2.6%
4월3일	18:00	유로존	CPI NSA	3월		124.37
4월3일	18:00	유로존	실업률	2월	6.4%	6.4%
4월3일	20: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3월29일 주간		196.8
4월3일	21:15	미국	ADP 민간고용	3월	130k	140k
4월3일	22:45	미국	S&P 글로벌 서비스 PMI 확정치	3월		51.7
4월3일	23:00	미국	ISM 서비스업 PMI	3월	52.6	52.6
4월4일	18:00	유로존	생산자물가 MM	2월	-0.7%	-0.9%
4월4일	20:30	미국	챌린저 해고건수	3월		84.638k
4월4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월25일 주간	214k	210k
4월5일	08:30	일본	가계지출 YY	2월	-3.0%	-6.3%
4월5일	14:00	일본	경기동행지수	2월		-5.8
4월5일	14:00	일본	경기선행지수	2월		-0.4
4월5일	18:00	유로존	소매판매 MM	2월	-0.3%	0.1%
4월5일	21:30	미국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	3월	200k	275k
4월6일	04:00	미국	소비자신용	2월	16.50B	19.49B
4월7일	17:00	중국	외환보유고	3월		3.226T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4월1일 (월)

- ⊙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 듀크대 쿡센터 주최 공로상 시상식서 수상 소감 (2일 오전 7시50분)
- ⊙ 휴장국가: 영국, 독일, 호주, 홍콩 등

4월2일 (화)

- ⊙ 호주 중앙은행, 3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공개 (오전 9시30분)
- ⊙ 미셸 보우먼 연방준비제도 이사,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주최 워크숍서 화상 연설 (오후 11시10분)
- ⊙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뉴욕 경제클럽 토론 주재 (3일 오전 1시)
- ⊙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 클리블랜드 기업경제연합 오찬행사서 연설 (3일 오전 1시5분)
- ⊙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헨더슨 상공회의소·네바다 라틴 상공회의소·베가스 상공회의소 공동 주최 토론 참석 (3일 오전 2시30분)
- ⊙ 알베르토 G.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취임

4월3일 (수)

- ⊙ 미셸 보우먼 연방준비제도 이사, 자본시장 규제위원회 라운드테이블서 연설 (오후 10시45분)
- ⊙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시카고 연방은행 화상행사 개회사 (4일 오전 1시)
- ⊙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스탠포드경영대학원 포럼서 경제 전망 관련 연설 (4일 오전 1시10분)
- ⊙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전미 지역사회 재투자 연합 컨퍼런스 토론 참석 (4일 오전 2시10분)
- ⊙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방준비제도 이사, 워싱턴대학교 주최 행사서 연설 (4일 오전 5시30분)

4월4일 (목)

- ⊙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리치몬드 주택건설협회서 연설 (5일 오전 1시15분)
- ⊙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멀티 챔버 경제전망 오찬 및 엑스포 Q&A 세션 참석 (5일 오전 1시45분)
- ⊙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 글로벌 상호의존센터 화상 행사 토론 참석 (5일 오전 3시)
- ⊙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주최 심포지엄 소개사 (5일 오전 8시20분)
- ⊙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방준비제도 이사,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주최 심포지엄서 연설 (5일 오전 8시30분)
- ⊙ 휴장국가: 중국, 홍콩, 대만

4월5일 (금)

- ⊙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 보스턴 연방은행 주최 스테이블코인 관련 화상 컨퍼런스 환영사 (오후 9시30분)
- ⊙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그레이터 볼티모어 위원회서 연설 (오후 10시15분)
- ⊙ 미셸 보우먼 연방준비제도 이사, 예비공개시장위원회 춘계 회의서 연설 (6일 오전 1시15분)
- ⊙ 휴장국가: 중국, 대만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표) - 주요 상장기업 외인 배당 지급 규모·일정... 내달 19일 삼성전자 등 대거 집중**

서울, 3월28일 (로이터) -

다음은 로이터통신이 28일 현재 추산한 주요 상장기업의 외국인 배당 지급 규모와 지급일 정보다.

회사명	예상 외인 배당액	배당 지급 예정일
삼성전자 005930.KS	1조3,792억원	4월 19일
현대차 005380.KS	9,865억원	4월 19일
기아 000270.KS	9,131억원	4월 15일
KB금융지주 105560.KS	4,619억원	4월 11일
삼성화재 000810.KS	4,208억원	4월 19일
하나금융지주 086790.KS	3,291억원	4월 9일
케이티앤지 033780.KS	2,271억원	미정
KT 030200.KS	2,154억원	미정
우리금융지주 316140.KS	1,893억원	4월 9일
LG 003550.KS	1,811억원	미정
DB손해보험 005830.KS	1,770억원	4월 19일
신한금융지주 055550.KS	1,643억원	4월 5일
현대모비스 012330.KS	1,312억원	4월 19일
S-OIL 010950.KS	1,304억원	미정
삼성생명 032830.KS	1,255억원	미정
LG화학 051910.KS	1,212억원	4월 23일
SK하이닉스 000660.KS	1,160억원	미정
기업은행 024110.KS	1,154억원	미정
현대글로벌비스 086280.KS	1,144억원	4월 19일
삼성물산 028260.KS	947억원	4월 12일
SK텔레콤 017670.KS	944억원	4월 25일
메리츠금융지주 138040.KS	830억원	4월 5일
총액	6조7,710억원	

- * 로이터가 기업 공시 등을 토대로 추산한 금액으로 보통주와 우선주 배당금 합산
- * 외인 배당액 규모 1천억원 상당만 집계
- * 배당은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며 배당 지급일 확정될 때마다 업데이트할 예정

(박예나·문윤아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분석) - BOJ, 시장 생각보다 덜 도비시킬 수 있다

도쿄, 3월27일 (로이터) -

일본은행(BOJ)이 마이너스 금리 종료 후 도비시킨 포워드 가이드를 버리고 정책 심의와 관련해 '데이터 의존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면서 단기적으로 금리가 더 인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소식통들이 밝혔다.

BOJ는 지난주 8년간의 마이너스 금리와 비정상적인 정책을 끝내고 수십 년 동안의 대규모 통화 부양책에서부터 역사적인 전환을 이뤘다.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엔화는 정책 전환 이후 1% 이상 절하됐는데, 이는 BOJ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시장의 도비시킨 해석이 추가적 금리 인상 시기는 다소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지난주 결정에서 BOJ는 "당분간 완화적인 금융 여건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BOJ 성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BOJ가 금리를 현재의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경제 및 물가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금리가 낮게 유지될 수 있다고 조건부로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OJ의 생각을 잘 아는 한 소식통은 3월 성명에서 "BOJ는 향후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다른 소식통도 이와 같은 견해를 밝혔다.

첫 번째 소식통은 "다음 조치의 시기는 데이터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지난주 BOJ의 언어는 물가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초완화 정책을 "계속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부양책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전 지침의 보다 단호한 어조와는 비교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새로운 소통 방식은 치솟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엄격한 포워드 가이드를 버리고 보다 재량적인 접근 방식을 택한 연방준비제도 등 다른 주요 중앙은행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시기를 특정하지 않으면서도 지난주 아직 2% 미만인 추세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높아지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에다 총재는 "물가 전망이 명백하게 오버슈팅되거나 중간 전망에 변화가 없더라도 물가 전망에 대한 상승 리스크가 명백하게 증가하면 정책 변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4월25~26일 다음 BOJ 정책회의에서 나올 2026회계연도 전망치를 포함하게 되는 BOJ의 새로운 분기별 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전망의 중요성을 높인다.

BOJ는 다음 달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새로운 전망은 정책위원들이 추세 인플레이션이 2%까지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 얼마나 낙관적인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3월 정책 전환 이후 실시한 로이터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의 절반 이상이 올해 BOJ가 금리를 다시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대부분은 적어도 4분기까지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엔화가 다시 하락하면 원자재 수입 비용이 다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엔화 약세를 추가 금리 인상의 잠재적 방어책으로 보고 있다.

우에다 총재는 엔화 움직임이 경제 및 물가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 BOJ가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미즈호 증권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고바야시 슌스케는 "BOJ는 일방적인 엔화 하락의 위험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머지않아 추가 금리 인상을 촉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10~12월 이후 BOJ가 금리를 다시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금 인상이 중소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지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가 공개되는 7월25~26일 BOJ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다이와 증권사의 수석 시장 이코노미스트인 이와시타 마리는 "인플레이션이 오버슈트할 가능성이 있다면 7월에 BOJ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jiyoun.kim@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